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841-01

제2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홍보단 2013 활동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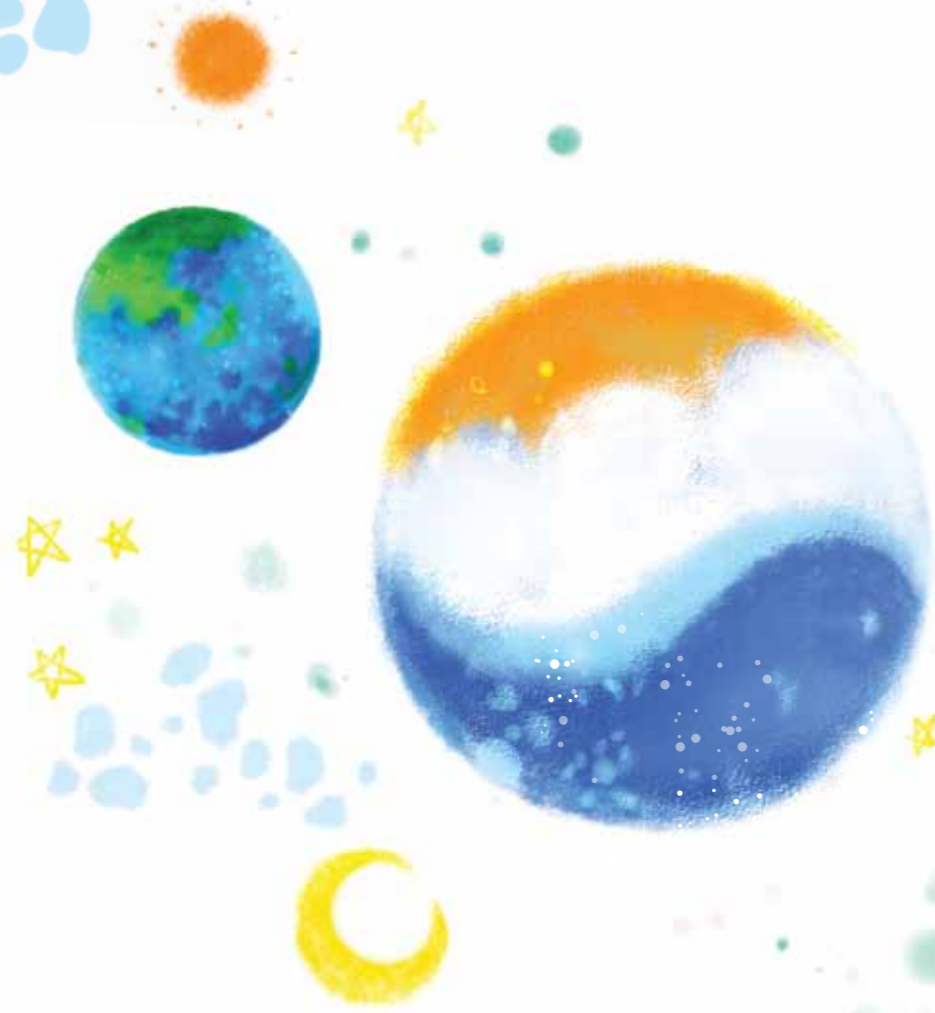
점음의 패기로 지구의 온도를 내려라!



발행처 기상청 기후예측과 발행일 2013년 9월 디자인&인쇄 (주)소프트하우스

기상청 · www.kma.go.kr
기후변화정보센터 · www.climate.go.kr





젊음의 패기로 지구의 온도를 내려라!

제2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2013 활동스토리



1. 개요

2. 홍보단 활동



사진·영상 속에서 기후변화
현장을 찾아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기후변화 UCC로 마음을 사로잡다!

3. 활동후기



● 배경 및 목표

- ✓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대상별 관심도 증대에 따른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생 대상의 참여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 기상청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학생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기후업무 홍보

● 홍보단 모집

모집대상 : 대한민국 대학생이면 누구나, 2~3인으로 1팀 구성

모집기간 : 4.29.(월)~6.21.(금)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www.kma2013.co.kr)

제출서류 : 팀 소개서, 활동 계획서



홍보단 포스터



홍보단 홈페이지

예선 발표대회

● 서류심사

심사기준 : 팀소개(10%) 및 활동보고서(90%)로 서면 평가

결과발표 : 6.28.(금)

※ 총 29팀(72명) 접수 → 21팀 선발

● 예선 발표대회 및 홍보단 위촉식

일시/장소 : 7.5.(금) 10:00~18:10 /기상청 다울관(1층)

내 용 : 21팀 발표, 홍보단 10팀 선발 및 위촉식 등

● 오리엔테이션

일시/장소 : 7.12.(금) 13:00~18:00/(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회의실

내 용 : 특강 및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

● 홍보단 활동(10팀)

활동기간 : 7~8월 중 자유롭게 활동

활동내용 : 1. 사진이나 영상 등에서 기후변화 현장 찾기

2. 행사, 축제 등에서 기후변화 홍보하기

3. 기후변화 UCC 제작

홍보단 혜택 : 기상청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참가여비 및 활동비 지급

● 결선 발표대회 및 시상식

일시/장소 : 8.23.(금) 13:00~18:00 /기상청 다울관(1층)

내 용 : 홍보단 10팀 발표 및 심사, 시상식 등

우수 활동팀 시상내역

구분	팀수	상훈	시상내용
대상	1팀	환경부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1팀	기상청장상	150만원
우수상	1팀	기상청장상	100만원
장려상	2팀	기상청장상	50만원
참가상	5팀		20만원

● 예선 참가팀 (총18팀)



특별한



기후변화유랑단



WECO



지구온나나



살아있나!



에코파크



Greenhood



지구학개론



외쳐EE!



살리기후



Climate leader



지구수비대



候야 같이 가



에코플란트



01체인지



고장난명



그린액션



Little Legends

예선 발표대회 및 홍보단 위촉식

● 주요내용

행 사 명 : 제2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선발 예선전
일시/장소 : 7.5.(금) 10:00~18:10 / 기상청 다울관(1층)

● 주요일정

예선발표회 후 기상청 견학 및 홍보단 위촉식 진행

● 예선 발표회 및 홍보단 위촉식

18팀 발표

예선전 진출 아이디어 공모작 발표: PPT 등으로 팀 소개 및 활동계획 등을 발표
(팀별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심사기준

- ✓ 팀소개 및 표현력 (10%) : 주제에 대한 관심과 발표력
- ✓ 활동계획 (90%) : 표현력, 타당성, 적절성, 홍보효과 등

●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내용

행 사 명 : 제2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선발 예선전
일시/장소 : 7.5.(금) 10:00~18:10 / 기상청 다울관(1층)

● 주요일정

예선 발표대회 상위 10팀을 홍보단으로 위촉

순번	팀명	학교	학과	이름
1	살리기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김웅현, 노주비
2	候아갈이가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김부원, 정다현
3	특별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김지수, 성유진, 성보영
4	외쳐TEI	인천대	환경공학과	남용선, 한석, 김철모
5	고장난명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서유리, 김연지
6	Greenhood	공주대	대기과학과	이아름, 김형규, 주홍철
7	기후변화유랑단	계명대	연극예술과	박술찬, 김상훈, 한송희
8	지구학개론	국민대, 숙명여대	경영학부, 미디어학부	박진형, 이영은
9	살아있나!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최준엽, 이현성
10	에코플란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박정하, 김범식, 라건주



제2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 오리엔테이션

● 주요내용

일시 : 7.2.(금) 13:00 ~ 18:00

장소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회의실

대상 : 대학생 홍보단 10팀, 25명

● 오리엔테이션 내용

특강

1.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기상청 기후예측과 이은정 연구관)
2. 대중 앞에 서는 법, 신나는 소통 (티큐이벤트 커뮤니케이션 이진성)
3. 기후변화로 소통하라!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
4. UCC 제작 방법 (레드브릭스 임선경 팀장)

활동계획 검토 및 기후변화 현장 체험에 대한 의견 교환



● 홍보단 소개 ●

1. 살리기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이 모인 팀입니다. 개인의 '건강',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정치',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환경인 '기후'의 보존을 위해 저희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내려 합니다.



2. 에코플란트

Eco-Plant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다라는 의미로 만든 팀명입니다. 대학생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특별한

'Storm Chaser'라는 교내 대기과학 동아리 활동 중 지식 교환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候야같이

'아빠 어디가'를 모티브로 대중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불문 모두 알기 쉽도록!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급속도로 빨라져가는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 고장난명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홍보 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UCC를 이용해 '한 사람의 백걸음보다 여러사람의 한걸음'을 강조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발표대회 및 시상식

6. Greenhood

그린후드란 green+neighborhood의 합성어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의 이웃 처럼 신경쓰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단순한 관심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7. 지구학개론

빠른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개론서 같은 존재가 되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언론인들로서 기후변화를 제대로 전달해 보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8. 살아있나!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하면 떠오르는 명대사 "살아있네~". 현재의 지구에게 지금 잘 있는지 묻는 말 '살아있나!'가 우리의 팀명입니다. 도시화와 기후변화의 숨은 관계를 찾아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 기후 모습을 알려주겠습니다.



9. 외쳐EE!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활동에 유리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직접 개최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기후변화유랑단

인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기후변화의 위협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 팀은 마임, 춤, 노래 등의 다양한 연극 양식을 활용하여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퍼포먼스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 8.23.(금) 13:00~18:00 / 기상청 다울관(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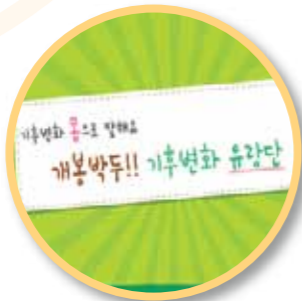
행사내용 : 홍보단 10팀 발표(발표자료, UCC), 기상청 견학, 시상식 등

시상결과

훈격	상금	상장	팀명	학교	학과	이름
환경부장관상	200만원	대상	살리기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김웅현 노주비
기상청장상	150만원	최우수상	에코플란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박정하 김범식 라건주
	100만원	우수상	특별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김지수 성유진 성보영
	50만원	장려상	候아같이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김부원 정다현
	50만원	장려상	고장난명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서유리 김연지
참가상	20만원	참가상	Greenhood	공주대	대기학과	이아름 김형규 주홍철
			지구학개론	국민대	경영학부	박진형
			살아있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이영은
			외쳐EE!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최준엽 이현성
			기후변화유랑단	인천대	환경공학과	남용선 한석
			기후변화유랑단	계명대	연극예술과	김철모 박솔찬 김상훈 한송희



2. 홍보단 활동



살리기후	명태 원정대, 국내산 명태를 찾아라!
에코플란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삶 속의 기후변화
특별한	'특별한' 지역을 찾아라!, 충주 한라봉
候아같이	현재야, 넌 어떻게 변했니?
고장난명	기후변화의 정체를 찾아서
Greenhood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지구학개론	박기자와 이기자의 기(후변화로), 생(활변화가), 총(분히 필요하다.)
살아있나!	부산에서 제작한 영화의 명장면 속 기후변화 현장
외쳐EE!	인천은 기후변화에 적응했을까?
기후변화유량단	KBS 드라마 '사랑비' 속의 기후변화 현장 찾기

명태 원정대, 국내산 명태를 찾아라!

국내 명태 어획량이 줄었다고?



명태 원정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활동에 임한 우리 팀은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의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한류성 어족인 명태**가 위로 북상하였고 이 때문에 국내산 명태를 더는 찾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명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내 시장은 **수입산 명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가 있음에 놀랐다.

심지어 동해안에는 살아있는 국내산 명태를 찾으면 **10배 가격**으로 보상해준다는 현상수배 유인물까지 뿌려졌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우리의 생태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번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국내산 명태는 왜 없어졌는가?

지역주민들은 명태 어획량 감소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때문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예방 방법에 대해선 알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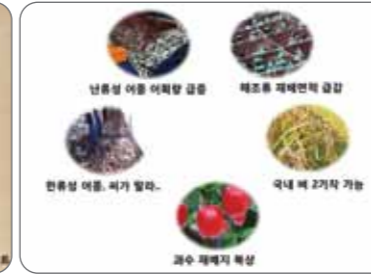
이에 구체적인 기후변화 예방 실천 방법을 캠페인을 통해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재앙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 중인 **우리의 일**임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육해줘야함을 깨달았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삶 속의 기후변화

기후변화, 밥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홍보활동을 시작하면서 생활 속에서 알아채지 못했던 기후변화의 영향들을 기존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기후변화 현장으로 재해석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음식들을 선별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기후변화의 현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은 자료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생활 속 기후변화 현장을 찾다

먼저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에게 메일로 문의하고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음식, 옷, 생활용품 등을 조사하며 생활 속에서는 어떤 기후변화 현상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현장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기후변화 관련 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느꼈고, 이러한 자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리되고, 타 분야들과 연계되어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활 속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특별한’ 지역을 찾아라!, 충주 한라봉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재배 농사물을 바꾼 농장 찾기



농작물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주변 환경, 토양,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농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에 따라 크기, 색깔, 당도와 같은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농작물의 특징**을 이용해 **기후변화 현장**을 찾기로 하였다.

그래서 농작물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농장을 찾기 위해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하던 도중 **충주**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장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였다.

이 농장은 단순히 시험 재배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 유명 백화점에 납품 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에 명시되어 있는 농장과 연락을 하였고, 농장주 이제택

씨를 인터뷰하고 사진과 정보를 제공받았다.

충주는 과거와는 달리 당도가 높은 한라봉이 생산될 정도로 **한라봉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반도의 끝에 있는 제주도의 기후에서 자라는 한라봉이 충북 충주까지 그 재배지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새로운 작물로 자리 잡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후가 변하더라도 변하는 대로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농민들에게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 상태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시한폭탄이 터져 아무런 작물도 수확할 수 없게 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팀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곳 중 주로 물과 관련된 곳이 표현하기 쉽다고 판단하여 **해안침식, 계곡변화, 해안생태계** 등을 위주로 기사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확한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을 택해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진 장소를 추천받기로 하였다. 추천받은 몇몇 장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자체평가와 페이스북 '좋아요'를 통해 최종 장소를 선정을 하였다. 그 결과, **강릉경포대, 강원도 원평 해수욕장, 낙동강** 등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모여졌다.

선정된 곳은 해안이 침식되고 물이 말라있거나, 때로는 많은 강수로 잠시 홍수가 일어나는 현상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곳 중 여러 방법을 통해 유지와 보수가 잘돼 있는 곳도 있었지만, **‘과연 이런 복구가 언제까지 진행될까?’** 라는 의문점이 들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곳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변해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 곳 들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의 정체를 찾아서

한 사람의 백걸음보다 다수의 한걸음이 중요하다



고장난명이 홍보활동을 하고 UCC 만들고자 하였을 때, 그 목적은 각심 고취와 실천의 중요성이라 생각했고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백걸음보다 다수의 한걸음이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활동에임하였다.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안방에서 즐겨보았던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서는 북극해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며 일반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환경다큐멘터리에서 역시 킬리만자로와 페루의 눈과 빙하가 녹은 모습을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

한반도 역시 기후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폭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며 매체를 통해 남의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취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각종 서적을 통

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7대 도시의 기온 상승률 1.44°C'를 찾았고 지구온난화는 먼 곳의 일어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적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깨달길 바라며 우리의 한걸음이 기후변화인식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명태는 사라지고 블루베리는 생겨나고



우리는 매체를 통해 기후변화 소식을 접하기도 하지만 정작 피부로 와 닿는 공감되는 소식은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느꼈고 뉴스와 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모습을 직접 탐방하기로 결정했다.

뉴스에서 명태는 1980년대 가장 잘 잡히는 어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어획량이 연간 1톤에 그쳤고, 반면에 난류성 어종의 어획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하였다.

심지어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동해안의 명태를 잡으면 최고 10배까지 보상해준다는 포스터를 걸기에 이르렀으니 웃어넘길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첫 번째 답사지, 마트로 향했다. 블루베리는 여름에 자라는 열매로 미국 북부, 캐나다 남부에서 많이 자란다고 한다.



그동안 물 건너온 블루베리를 먹고 뜯고 맛보고 즐겼다면 이제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재배된 블루베리를 마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생선코너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황태, 동태 등이 추운 지역인 러시아산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녹차는 전라남도 보성이 재배지로 유명한데 이제 그 판도가 바뀌어 북측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까지 재배지가 올라 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우리나라가 정말 따뜻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사와 현장 답사를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변화"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기후변화 지식 및 심각성을 홍보하였다.

박기자와 이기자의 기(후변화론). 생(활변화가). 중(분히 필요하다.)

특산물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구학개론은 기!생!충(기후변화로 인해 생활 변화가 충분히 필요하다)을 주제로 여러 시장과 가게들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인터뷰, 조사, 취재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는 특산물이 있고, 그 지역 기후에 맞는 옷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본 결과! 음식메뉴가 바뀌고 옷감들이 조금씩 얇아지거나 혹은 두꺼워지는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지역의 특산물이니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것이 상인들의 통일된 말씀이었지만 그 특산물을 고집하자니, 이상기후로 인해 그 특산물의 생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더 이상 원산지가 원산지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 특산물로 요리

를 할 시에는, 전보다 가격이 비싸지고, 예전의 그 맛이 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제작한 영화의 명장면 속 기후변화 현장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 찾기



우리는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보았던 영화와 광고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피해 정도를 과연 대중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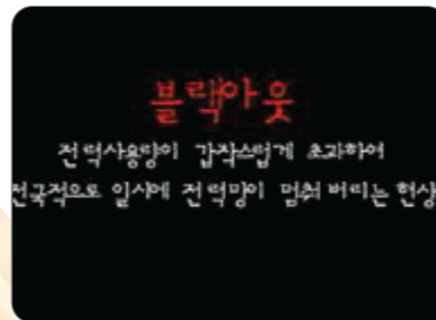
주 컨셉은 '반전'으로 무절제하게 전파되어온 기후변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실제 일어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속의 피해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화 '해운대'속에 도시침수 장면을 통해 태풍 매미 당시의 침수된 도시 모습과 비교하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카콜라 광고의 북극곰의 모습과 실제 북극곰을 비교하여 사실성 있는 현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매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도시의 대정전이 발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조건'이란 프로그램 중 블랙아웃 모습과 실제 순환 정전 모습을 비교하였다.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우리는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며 이런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한다고 느꼈다.



인천은 기후변화에 적응했을까?

육지 및 해안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종 변화



영상·사진 속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서적 조사, 다큐멘터리시청 등으로 사전 자료를 모으고 직접 인천의 대표적인 항구인 **소래포구**와 **연안부두**에 가서 현장조사를 통해 인천의 어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민어**와 **먹갈치가 인천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생물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원예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실시한 사과나무 미래환경 실험인데 초기 실험당시 **CO₂를 2배** 올려 재배한 경우 사과의 생육이 빨라져 **성장이 끝난 사과의 크기가 일반조건보다 크기가 작았고 온도가 일반조건보다 5도 높은 경우 색이 변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같은 실험 조건에서 같은 나무로 3년째 실험을 했을 때 사과들이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여 사과의 크기가 정상 상태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생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들도 생존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KBS 드라마 '사랑비'속의 기후변화 현장 찾기

기후변화 몸으로 말해요

우리 팀은 전공을 살려 KBS 드라마 '사랑비' 속에서 기후변화현장을 찾기로 했다. 우선 드라마를 감상하고 현장 탐방에 나섰다.

본격적인 탐방은 드라마 속 **1970년대의 자연환경과 인물들의 옷차림** 등을 확인하고 **2012년 요즘의 자연환경과 옷차림** 등과 비교하여 드라마 촬영현장인 우리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기후변화를 찾아보았다.



기후변화 현장을 조사하면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고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기후변화의 모습을 단지 시간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사진과 같은 자료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험처럼 대중들도 너무나 긴 시간의 한 시점에서 나머지 시간을 모두 본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짧은 시간동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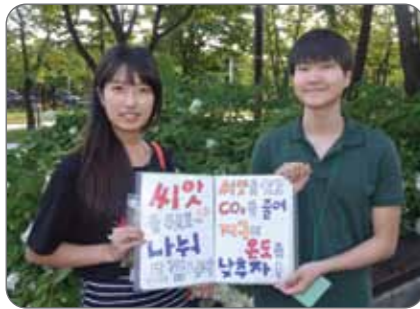


살리기후	그 여름, 기후변화를 알다
에코플란트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다
특별한	특산물 별종에 대해 알려드려요
候아같이	알고 있는 자, 즐겨라!
고장난명	우리가 주체가 되어 기후변화 두 발로 직접 홍보하기!
Greenhood	눈으로 보는 기후변화 체험
지구학개론	기후변화 알림이 프로젝트
살아있나!	우리는 부산 기후변화 홍보단!
외쳐EE!	찾지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EE!
기후변화유랑단	선생님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퍼포먼스

● 살리기후

그 여름, 기후변화를 알다

청춘 양구 배꼽 축제(기후변화 4행시 & 친환경 EM용액 증정)



우리는 관람자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기를 원했다.

먼저 '양구 배꼽 축제'로 뛰어들어 '참여'나 '관람'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후변화 4행시 짓기'와 'EM용액 무료 증정' 등의 활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 기후변화가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에 가져다주는 피해와 실생활 속에서 내손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신도시 지역에서 '게릴라 캠페인 활동'으로 기후변화 예방 방법을 전달하였다.



'녹색식물심기' 활동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우리는 식물을 심어야겠다는 답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그 한 식물을 심는다는 의미를 넘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마음가짐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는데 동참하는 마음가짐

을 기른다는 의미도 들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씨앗과 양질의 흙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를 위해 식물을 함께 심는 것을 권유하는 일은 단지 일시적인 체험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씨앗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자전거로 CO₂ 다이어트

그리고 자전거 CO₂ 다이어트라는 자전거타기 체험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 또한 우리 팀의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활동의 의미를 홍보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에코플란트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다

2013 YOUTHECA 글로벌청소년 토크콘서트 & 활동 엑스포 (기후변화 책자 및 스티커 배포)



우선 우리 팀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13 YOUTHECA 글로벌청소년 토크콘서트 & 활동 엑스포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엑스 전시홀에 부스를 설치하고 피켓활동, 도장 찍어 메시지완성하기, 포스트잇 붙이기, 기후변화 책자 및 스티커를 배포하면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활동 참여를 유도하였다.

길거리 홍보 활동 (길거리 피켓 활동 & 부채 및 스티커 배포)



또한 우리 팀이 가진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길거리 홍보 활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자 하였다.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부채와 스티커를 배포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인식에 대한 서명으로 도장을 찍어 메시지를 만들면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런 활동 소식들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홍보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실생활과 공감되는 상황들과 연관시킨 친근한 글로 게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딱딱한 정보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수 있도록 하였고, 직접 제

작한 부채와 스티커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에코플란트의 활동내용을 홍보하면서 더불어 다음 희망해 사상 환경 분야 최초로 모금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 특별한

특산물 별종에 대해 알려드려요

2013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체험 행사 부스 운영)

우리는 직접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2013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주최 기관의 활발한 홍보로 과학관련 내용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학생들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부스를 방문했고, 고등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위해 단체로 참가하기도 했다.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을 만나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퀴즈, 포스트잇 붙이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중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달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단순히 설명만 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답을 생각해 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PPT를 구성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실천방안을 적어봄으로써 실천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 候야같이

알고 있는 자, 즐겨봐!

청개구리 물놀이 축제(기후 컵·배지 만들기)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현상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인천 청개구리 물놀이 축제', '강릉 경포대 물놀이', '안양 1번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행사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본인이 실천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고자하였다.

우선 홍보를 하기 위해 팸플릿 홍보는 물론, 컵 만들기, 배지 만들기, 분리수거 하기 등의 체험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발로 뛰었다.

홍보 주 재료였던 컵과 배지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빨리 소모되어 놀랐기도 했었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 좋아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었고 제일 재밌었던 행사였다.

또한, 우리 팀의 홍보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부모님과 함께 많은 것을 배워 간다면 '팀의 작은 고생은 열

번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는 UCC도 찍을 겸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사진과 퀴즈, 뽕망치라는 세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전달하면서 UCC도 찍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안양 1번가 홍보활동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안양 1번가에서 홍보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많아 긴장이 되었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조금씩 홍보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하였다.



● 고장난명

우리가 주체가 되어 기후변화 두 발로 직접 홍보하기!

안양 1번가 & 과천 대공원 & 광화문 광장 홍보활동



안양지역에서 기후변화 혹은 환경에 관련된 행사가 6월에 종료되었음을 접한 후, 우리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시행하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안양 지역 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안양역사와 안양 1번가, 전 연령층이 방문하는 안양 인근의 과천 대공원과 함께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을 홍보장소로 선정하여 메시지를 적은 팸말과 책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체 제작한 UCC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참여해준 시민들에게는 재생용지로 만든 봉투에 씨앗을 넣어 나눠주기도 하였다.

또한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춰 작성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게재하여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양대학교 기후변화 대학원 & 안양시청 녹색성장과 방문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안양대학교 기후대학원에 방문하여 교수님의 자문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을 통하여 안양시청 녹색성장과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안양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정과 환경 친화적인 안양을 만들기 위한 안양시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교수님과 시청의 관계자분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배우고 기상청에서 지역기후변화 홍보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reenhood ●

눈으로 보는 기후변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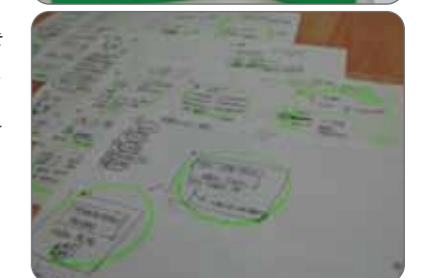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눈으로 보는 기후변화)



우리는 수집한 정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고,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했다.

마침 과학체험관으로 과학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파트가 있어 기후변화 홍보에 안성맞춤이라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판넬, 안내책자를 준비하였고 간단한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측에서 준비해준 부스에서 엄청난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기후변화에 관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여기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은 이상기후를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기후변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서울 대학가에서 안내책자 나누어 주기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활동 후 기후변화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울 내 10개 대학에 우리가 만든 안내 책자를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하였다. 좀 더 활발한 홍보단 활동을 위해 홈페이지와 함께 기후변화 앱을 만들기에 돌입하였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린후드가 선구자가 되어 앱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여 기후변화에 이바지할 날을 바라보고 있다.

● 지구학 개론

기후변화 알림이 프로젝트

중학생 눈높이 수업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행사에 참여했다.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보다 나은 방법으로 보다 재밌는 방법으로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였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는 지구! 이런 지구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과 실천사항들을 제시해주며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닌 몸으로 직접 배우며 익히는 학습이 되도록 준비하여 성신중학교, 성신고등학교, 거제중앙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창원 경상남도 기후변화 교육 허브 센터, 외국인학교에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알림이 강연을 하였다.

학습과 더불어 식물 키우기, 재활용 이용하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 실천을 하며 몸소 익히는 학습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업으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 행사 자체를 만들었고, 직접 만든 강연PPT를 통해 녹색 성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살아있나!

우리는 부산 기후변화 홍보단!

부산바다 축제(ox퀴즈)



우리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으로 인한 도시의 피해를 알리고, 정말로 도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대중들의 기후변화의 이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 팀은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만큼 바다를 적극 활용하였다. 가장 먼저 방문한 '부산바다축제'는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전국적인 축제로 많은 대중들에게 기후변화를 홍보하기에 적합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상청 홍보단이기 때문에 부산 기상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우리가 직접 준비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강연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좋은 내용 배워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홍보 부스 운영)

또한 '해양환경전'에서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OX퀴즈를 실시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여 홍보하였고,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부모님들이 많아서였는지 참여율도 좋아 이 또한 뿌듯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댓글과 호응을 보여주는 분들을 보고 홍보단의 참된 의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 외쳐EE!

찾지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EE!

앉아서 찾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자 EE!(길거리 홍보)



우리 팀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제대로 된 캠페인을 펼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 보다는 홍보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홍보야말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해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정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 지역의 지하철역 입구와 넓은 광장을 찾아 홍보활동을 하였다. 만나는 시민 분들 모두 해가 거듭할수록 장마기간이 길어지고 기온도 높아져 열대야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 홍보활동을 하면서 뉴스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책, 음료수와 시드 페이퍼 등을 나눠주고, 더 많은 관심을 끌고자 바디페인팅과 곰인형 분장으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버스에 탑승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 기후변화유랑단 ●

선생님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퍼포먼스

호남지역 교장교감 대상 기후변화 정책과정(퍼포먼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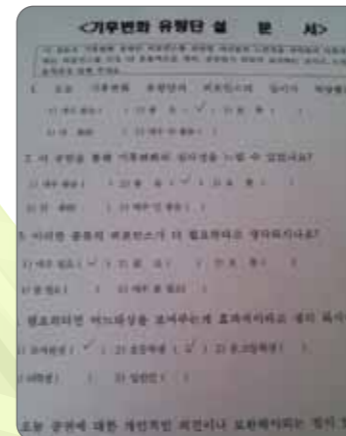
첫 번째 홍보활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여 두 번째 홍보활동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우리는 호남지역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후변화 정책과정이란 행사에 참여하였다.

광주지방기상청장님의 개회사 전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 퍼포먼스를 공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공연을 보게 될 학생들에게 우리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공연을 본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할지 알아보았다. 이번 현장 활동의 참여는 처음 계획했던 박람회장이나 축제 장소에서의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관중들에게 퍼포먼스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배경음악과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재미있고 알찬 구성을 짜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회만 갖게 되어 많이 아쉬웠다. 그러나 예상 외로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들어 정말 보람을 느꼈다.





살리기후	기후학개론
에코플란트	기후변화, 무엇 때문일까요?
특별한	쇼! 기후중심
후야같이	기후 다이어트
고장난명	1.44°C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린후드	기후제라블(Climate Miserables)
지구학개론	지구 3°C 상승의 비밀
살아있나!	기후변화와의 전쟁
외쳐EIT!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
기후변화유랑단	기후변화 무서워요! 연극

기후학개론

‘기후변화’ 드라마에 담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제로 피해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담고,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지를 한 편의 드라마로 담고 싶었기 때문에 영화 ‘건축학개론’을 패러디한 ‘기후학개론’을 제작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랑을 잃고, 기후변화 홍보단으로 다시 찾게 된 사랑의 과정을 보여주며 기후변화의 피해사례와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 등이 들어가게 구성하였다.

또한, 블로그나 카페는 스스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오지 않는 수동성이 있지만 페이스북은 전파력이 뛰어나고, 페이지를 이용한 게시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살리기후 페이지에 UCC를 게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UCC를 촬영했던 장소인 양구의 지역 커뮤니티와, 속초의 관광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고, UCC의 용량과 형태를 고려하여 포토톤 형태로 만든 자료도 게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이 변해야 지구가 변하지 않습니다

UCC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즉, 네티즌들은 어떤 특정한 정보의 필요로 UCC를 직접 찾고 그 속에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UCC의 ‘보임’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것이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은 UCC의 의도에 벗어나며 사람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 그래서 UCC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hook’의 역할로 작용해야 하며, 그 hook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극이 된다면 비로소 사람들은 그 hook에 대한 지식을 찾아본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통해 상황을 묘사하고, UCC를 보는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마지막에 제시되는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SNS(페이스북), 커뮤니티 및 기상청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UCC노출에 힘을 쏟았다.

● 특별한

쇼! 기후중심

기후변화가 우리삶에 미치는 영향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신문, SNS를 통해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자 하는 UCC를 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유익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뉴스 형식**을 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뉴스는 사람들이 매일 접할 수 있어 익숙하고, 짧은시간 내에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뉴스형식으로만 제작한다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므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 같아 뉴스형식에 **음악 프로그램형식**을 가미하여 자연스럽게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UCC를 제작하게 되었다.

UCC에는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는 농장**을 찾아가서 기후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는 농업인과의 인터뷰와 **기후변화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서 **기후변화와 특산물의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넣었다.



끝으로는 직접 우리가 발로 뛰며 홍보하였던 사진을 음악과 함께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 候야같이

기후 다이어트

'기후변화' 배우고, 즐기는 문화가 되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고 왜 이것을 막아야 하고, 왜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의 장점인,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활용 하였고, 시작은 강렬하지만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패러디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게 되었다.

뮤직비디오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가수 **'싸이'의 젠틀맨**을 패러디하였고, 반복적이고 간단한 춤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 효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재미있게 제작된 UCC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배워가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 고장난명

1.44°C의 의미를 아시나요?

누구나 참여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고장난명은 UCC 제작에 '1.44°C의 의미를 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대비' 효과를 사용해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가 막연하게 느껴졌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바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어필하였다.

영상 속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기상청 영상**, **뉴스 편집본**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영상에는 **광화문, 안양역, 안양 1번가** 등에서의 **현장 활동 모습**을 넣었고 중간 중간 메시지 전달 화면을 넣어 사람들에게 주제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청 관계자 분과 교수님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공신력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후변화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영상을 넣음으로써 이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효과를 기대**하였다. 제작한 UCC는 국내외로 전파되길 바라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활용하여 게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



● Greenhood ●

기후제라블(Climate Miserables)

노래로 전하는 기후변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친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릴지 고민하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를 이용한 패러디물이 적합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영화 레미제라블의 'one day more'**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는 레미제라블의 'one day more'를 개사하여 **'기후제라블(Climate Miserables)'**로 탄생을 시켰다. 개사 내용은 영화 속 웅장함과 심오함을 그대로 살리되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사람들에게 더 뚜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 가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폭염 속에서 땀 흘리기, 물속에 가라앉는 장면**을 연기 하였다.



촬영을 하면서 내 몸이 힘든 만큼 지구가 기후변화로 앓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후변화 방지와 심각성 인식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특히 가사 중에 **'내일로 자동차 타지말자 BMW(=Bus, Metro, Walk)** 타자 환경이 나아진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꼭 BMW를 머릿속에 넣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며 지구를 위해 힘써주면 좋겠다.**

지구 3°C 상승의 비밀

3°C가 만드는 차이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제작한 UCC는 이대로 평균 기온 상승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3°C가 상승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UCC 제작 방법으로 **페이퍼웍스(정보전달형 스토리텔링)**를 선택하였는데, 아무래도 가정 상황을 전제로 하다 보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일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영상으로 직접 담기 어려운 개념들을 종이와 펜, 목소리만으로 알기 쉽게 해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홍보 UCC '3°C가 만드는 차이'는 총 **네 가지 짧은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현재 방영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들을 패러디한 것이다.

특히 패러디를 하게 된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었을 때 현재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상상하여 재미있게 다루면서 흥미를 끄는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예상한 3°C가 상승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적 알리기 쉬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의 전쟁

북극곰을 통해서 기후변화 알아보기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UCC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뉴스와 기사를 토대로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고, UCC를 보면서 직접 느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시킬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제작하였다.

사실 행사·축제 참여 활동을 하면서 한 분 두 분 관심을 가져 주실 때 UCC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게 했던 것 같다. 하나하나 뭉치면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또한 SNS의 장점이기도 하기에 SNS를 통해 UCC를 홍보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다.



● 외쳐TE!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물리 방식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뉴스와 언론매체를 통해 온실가스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에 임하면서 황소 방귀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를 바탕으로 UCC 모티브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물리상식들'을 기본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알지 못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상식에 대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스톱모션을 이용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 만큼 재밌고 일목요연하게 주제를 담아 제작하였다.

그리고 실제 홍보활동 전에 QR코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찍어보게 하여 홍보를 진행하였고 SNS를 통해 홍보 내용을 공유하여 시청을 유도하였다.



● 기후변화유랑단

기후변화 무서워요! 연극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다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자료는 대부분 영화나 다큐멘터리 또는 홍보전단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더욱 필요한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감각적이고 재미있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기후변화 유랑단이 만든 퍼포먼스를 연습과정부터 공연모습을 UCC로 제작하여 누구나도 기후변화 홍보 퍼포먼스를 연습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자 했다.

특히, 영상배경과 퍼포먼스를 모두 공개하여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스토리 작업과 소품, 배경음악, 공연 연습까지 하나하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습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며 완성된 UCC는 기본적으로 Youtube, Facebook 및 Twitter 등 다양한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 외에, 기상청과 관련 있는 모든 SNS를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자 하였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살리기후’ 활동 속엔 지구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다.

지구를 살리자는 모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래서 더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뜨거운 참여가 동반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은 생각보다도 대단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책자를 유심히 보고 한 부씩 가져가시는 분들, EM용액을 꼭 집에서 사용하시겠다는 분들,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물려와 엄마와 함께 심겠다는 아이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죄송하고 아쉬웠다.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막고 지구를 수호하는 데 국가와 공공기관 및 단체들에서 앞장선다면, 충분히 시민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활동이 다 끝나니 후련하기도 하지만 ‘살리기후’ 이름으로 시민들을 만났기에 책임감도 생겼다. 앞으로도 ‘살리기후’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노력할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듯 **지구를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활동보다는 **개개인의 인식수준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당차게 홍보활동을 시작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홍보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크다.

지난 두 달여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홍보활동 하나하나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다. 길거리 홍보 때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하며 사람들의 무관심과 맞서야 했고, UCC 촬영 당시에는 들쭉날쭉한 날씨에 서울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느라 기진맥진했었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익숙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어려워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홍보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지를 접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조금이나마 바꾸지 않았을까 기대해 본다.

홍보활동에 있어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서인지, 홍보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즈음엔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우리 세 명으로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달여 남짓한 위촉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의미 있고 열정적인 나날들이었던 같다.

백문이 불여일견. 뭐든지 해봐야 안다는 것을 이번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홍보활동이었다.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던 게 현실화되고, 가능하리라 예상했던 계획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의 연속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적응의 필요성

지역기후변화 홍보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땐 기후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특산물 변화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예선발표 후 심사위원의 조언을 듣고 보니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응의 필요성을 알리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활동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다. 농장을 섭외하거나, 수업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 또한, 날씨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홍보를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판넬을 읽고, 정보를 얻어가려는 부모님도 많이 있었지만,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고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기후변화 홍보단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앞으로 TV 공익광고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

또한, 농민들의 도전정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라봉 농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품종을 기르면 5년 정도는 소득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하고, 그 지식을 재배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배농작물을 바꾸기까지 돈과 노력, 시간이 막대하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특산물이 변화하는 현상이 긍정적이라는 처음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UCC 제작할 당시, 우리 팀 모두 처음 접하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차근차근 기초적인 부분을 익혀가며 결국 해냈을 때의 그 뿌듯함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동영상편집을 하게 되었고, **기후변화 홍보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

우리 팀이 기상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라온 포스터 한 장에 관심을 갖게 된 사소한 계기... 우리가 '경공학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졌었던 기후변화...

긴장된 예선기간을 끝내고 많은 팀 중 10팀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나니 기쁨도 잠시 책임감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

거기에서 활동조차도 경쟁이다보니 색다르고, 특별한 활동을 찾아보기 위해 애를 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작은 활동이 아직 기후변화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활동 중에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어린 나이에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 해주고, 답변해주고, 실천 약속까지 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지만 대견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차다고 느꼈다.

활동 기간 동안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팀원 서로에게 값진 경험이고 보람된 일이었다.** 또한 우리를 만났던 주변인과 시민들 역시 값진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홍보단 활동 기간은 끝이 났지만 제대로 된 기후변화 홍보단 마무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며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팀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기로 다짐했다.

● 고장난명



우리 앞길의
디딤판

대학생활의 꽃 대외활동, 캠퍼스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실 밖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기상청 대학생 홍보단을 통해 얻었다.

홍보단 활동을 하면서 기상청을 관람하고 평소 꿈꾸어온 직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 장마철이라 분주했던 기상센터,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화성연결, 북한 핵실험도 파악할 수 있는 지진예측센터까지! 살아있는 체험 현장이었다.

기후변화를 알리는 홍보활동 과정은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다. 7월 말~8월 초, 유난히 덥고 폭염도 길었다. 땀약벌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고 때문에 종교집단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홍보 활동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였다. 기후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할 때에도 지인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페이지에 올릴 수 있었고 이러한 관심으로 퀴즈 이벤트와 홍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막연하게만 다가왔던 대학생 홍보단을 멋지게 해낸 우리의 도전 정신과 생각보다 많았던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향후 우리의 앞길의 디딤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쉽지만 보람된 대학생 홍보단!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진행되길 바란다.

Greenhood ●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에 임했다.

현장 찾기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속상하기도 하였지만, 미흡한 내용이라도 꼼꼼히 다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가는 분들을 볼 때면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홍보단으로서 가장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홍보단 활동 중 UCC제작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UCC영상 장면 중에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직접 들어가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다.

물속을 수차례 드나들며 굉장히 힘들었지만 힘들게 촬영한 만큼 UCC영상 '기후제라블'에 더욱 애착이 가기도 한다. 아직 더 소개하고 홍보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기후변화 홍보단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 팀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고맙다는 말도 전해주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3기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보람된 활동이었고, 뿌듯하다.

우리는 최고의 팀이었고 이 말을 하고 싶다.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3차적인 충격

우리 지구학개론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충격”이란 두 글자다.

사실 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충격을, 현재 지구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2차적인 충격을, 이상 기후로 인해 생태계와 그에 따른 우리 생활이 변화하고 있음에 3차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우리 홍보단들을 임명하고 이러한 활동을 추천해주는 것에 정말 감사했고, 기상청이 아주 자랑스러워 보였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러한 **신선한 충격 덕분에 더욱 반성하게 되고, 오히려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즐거워야, 홍보도 즐겁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즐겁다는 생각에 정말 웃으면서 활동을 한 것 같다.

우리가 강연했던 학생들만큼은 제발 지구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생.총.에서 났던 분들, 모든 **기상청 관계자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계를 통한 재충전과 성장

우리 팀은 처음에 막연하게 기상청 홍보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기말고사기간에 서류접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지원하게 된 것은 아니어서 기대가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과수업에서 배운 도시와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서류통과라는 응답으로 돌아왔다. 응답에 계속 답해 가다보니 이렇게 **본선발표라는 높은 산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번 기상청 홍보단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면서 부족함을 무지하게 많이 느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다른 일과 병행하다보니 정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방전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방전될 때마다 재충전시켜준 것은 오히려 한계를 만났을 때였다. **한계에 부딪히고 부족함을 느낄수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기상학에서 어떠한 부분을 공부할지 고민하던 우리에게 기상청 홍보단은 길을 알려주었다. 누군가에게 홍보를 하기 전에 나 자신이 **더 잘 알지 못 했던 걸 부끄러워하며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번 기상청 홍보단 활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 외쳐TE!



스펙을 벗어난
소중한 추억

우연치 않게 기상청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진행방식과 상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를 목표로 지원하였고 그렇게 시작한 공모전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이란 걸 깨달았다. 기존의 틀에 짜인 공모전과 홍보단이 아니라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홍보를 계획하고 제작하면서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하니 그 기간이 너무 즐거웠고 내가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 설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 '재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만 같아.', '스펙 쌓자.', '이거라도 하면 이력서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겠지.' 등 이런 심정으로 참가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물론 우리도 그런 학생들 중 하나였지만, 이번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은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안겨주었다. 대학생활 중 **스펙을 벗어나 소중한 추억을 얻어 가는 기분**을 느꼈다.

● 기후변화유랑단 ●



짧은 기간 속
한 줄기 빛

기후변화는 우리와는 상관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다지 와 닿지 않는 이야기**였다. 홍보단 예선을 준비하면서도 도저히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홍보해야할지 몰라 많이 난감하기도 했다. 지도교수님의 친구 분 중 기상청에 계신 분께 부탁을 드려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세 명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설명을 듣고 보니,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알지 못한 것이 조금은 우스웠다. 그리고 공부하며 알아 갈수록 정말 어려웠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낯설기도 어렵기도 해서, 이것을 연극 퍼포먼스로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기상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 아쉽다. 시간만 좀 더 있었다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다 전문적인 연극이나 퍼포먼스로 만들고 싶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좀 더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연극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기후변화 이야기...좀 더 멋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싶다. 지금까지 재미있고 즐거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신 기상청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